

교과명 : 대학글쓰기
분 반 : 003
과제명 : 02 문화비평문

학 과 : 외식조리학부 외식조리전공
학 번 : 202411017
이 름 : 김민승

초고작성일 : 2024년 05월 24일
1차 피드백 : 2024년 00월 00일
여러 차례 피드백을 수행했을 경우 모두 적어주세요.
최종과제제출일 : 2024년 00월 00일

초고본	01쪽
1차 피드백 및 반영표	02쪽
최종 과제 제출본	

- *여러 차례 피드백을 받고 수정했을 경우 줄을 추가하여 사용하세요.
- *줄 추가 CTRL + enter 줄 삭제 F5(칸지정) -> F8(줄지정) -> Del.

글쓰기 윤리 준수 서약서

나는 “성찰과소통을위한글쓰기” 교과목에서 제출하는 과제물 작성 과정에서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 게재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연구 윤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5월 24일

이 름 : 김민승

과제물 제출 전 체크리스트

1. 이 과제물은 내가 직접 연구하고 작성한 것이다. (O)
2. 인용한 모든 자료(책, 논문, 인터넷자료 등)의 인용 표시를 바르게 하였다. (O)
3. 인용한 자료의 표현이나 내용을 왜곡하지 않았다. (O)
4. 정확한 출처 제시 없이 다른 사람의 글이나 아이디어를 가져오지 않았다. (O)
5. 과제물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거나 구매하여 제출하지 않았다. (O)
6. 이 과제물과 동일한 내용을 다른 교과목의 과제물로 제출한 적이 없다. (O)

-출처 : 연구윤리정보센터, 『학습윤리 가이드: 배우고 익히는 우리의 자세』,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2013, 70쪽 참조.

◆ 문화비평문 (초고)

영화 ‘밀정’ 속 이정출의 친일과 애국의 공존

외식조리학부 외식조리전공 202411017 김민승

1. 영화 ‘밀정’ 소개

영화 ‘밀정’은 2016년에 개봉한 김지운 감독의 작품으로, 송강호, 공유, 한지민 등이 주연을 맡았고, 이병헌, 박희순이 특별출연을 맡아 유명 배우들이 대거 등장한 영화이다. 또한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엄태구, 허성태 배우가 이 작품에서 뛰어난 연기를 통해 유명세를 알리기 시작하게 된 영화이기도 하다. 배경은 1920년대 일제강점기로, 일본 경찰과 의열단원이 서로의 정체는 알지만, 속내를 감춘 채 각자가 맡은 임무를 수행하는 내용을 담은 영화이다. 감독과 배우들의 뛰어난 명성에 맞게 평점 8.57, 관객수는 750만 명을 달성했으며 백상예술대상, 아시아 필름 어워즈,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 외 4개의 상을 수상한 성공적인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2. 친일과 애국의 공존

영화는 의열단의 김상옥을 모티브로 한 김장옥(박희순)의 등장으로 시작된다. 의열단의 독립운동 군자금을 구하기 위해 활동하던 중 일본군들에게 포위되게 되고 홀로 수많은 일본군들을 상대로 총격전을 벌이지만 끝내 과거엔 친구였지만 이제는 조선총독부 경무국 경부 신분으로 자신을 잡으러 온 이정출(송강호)앞에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며 권총으로 자살을 한다. 한편, 의열단은 중국 상하이에서 독립 활동에 사용할 폭탄을 국내로 들여오게 된다. 이에 경무국 히가시 부장은 의열단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 이정출에게 의열단원 김우진(공유)에게 접근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이정출은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고 김우진을 만나게 된다. 하지만 김우진은 이미 이정출의 실제 신분을 알고 있었고, 의열단장 정채산(이병헌)은 이정출을 이용하여 의열단이 임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이정출을 자기편으로 포섭하기로 한다. 그렇게 이정출, 김우진, 정채산은 삼자대면을 하게 되고, 이정출은 의열단이 임무에 사용할 폭탄을 경성까지 운반하는 일을 돕게 된다. 하지만 하시모토(엄석구) 경부가 이정출을 수상하게 여겨 감시를 하게 되는데, 하시모토가 의열단에 몰래 심어둔 밀정을 통해 의열단이 경성행 열차에 폭탄을 실었다는 정보를 입수해 의열단의 계획을 알아차리게 된다. 그렇게 하시모토는 의열단을 처단하기 위해 경성행 열차에 탑승하게 되고, 의열단은 이를 모른 채 폭탄을 실은 경성행 열차가 출발하게 된다. 이정출과 김우진이 열차 내 식당에서 얘기를 나누던 중 하시모토와 그의 부하들이 식당에 들어오게 된다. 이정출이 의열단인 김우진과 함께 얘기하는 것을 보고 이정출이 밀정이라고 생각한 하시모토는 이 둘을 처단하려고 하지만, 이정출과 김우진은 재빨리 권총을 꺼내 하시모토와 그의 부하들을 사살하면서 죽음을 면하게 된다. 하지만 의열단이 경성행 열차에 탑승해있다는 소식을 들은 경무국은 경성역에 일본 경찰들을 배치하였다. 경무국은 이미 의열단들의 신원을 확보한 상태였기 때문에 경성역에서 일부 의열단원들을 사살 및 체포하였고, 변장을 하여 몰래 폭탄을 챙겨서 경성역을 빠져나간 김우진은 체포된 의열단원을 구하러 다시 경성역에 왔지만, 임무는 수행하여야 했기 때문에 의열단원을 구하지 못한 채 폭탄만 챙겨 경성역에서 빠져나오게 된다. 며칠 후 임무 수행을 위해 김우진과 이정출은 산 속 은신처에 폭탄을 숨기고 있었다. 하지만 경무국은 의열단에 심어 놓은 밀정을 통해

이들의 은신처의 위치를 알게 되고, 수십명의 일본 경찰들이 은신처를 습격하게 된다. 이에 김우진은 임무를 어떻게 해서라도 수행하여야 했기 때문에 이정출에게 폭탄을 맡기고 꼭 임무를 대신 수행해달라는 부탁을 남기게 된다. 그렇게 김우진 혼자 일본 경찰들의 시선을 끌게 되고, 이를 틈타 이정출은 폭탄을 가지고 도주하게 된다. 그리고 결국 김우진은 일본 경찰들에게 다리에 총을 맞고 붙잡혀 감옥에 갇히게 된다. 도주한 이정출은 김우진이 부탁한 의열단의 임무를 수행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고, 이정출은 히가시의 파티에 잠입해 폭탄을 설치하고 히가시를 비롯해 여러 일본 고위 관료들을 폭사시키며 의열단의 최종 임무를 이정출이 일본 경무국 경부 신분으로 대신 수행하며 영화가 마무리된다. 나는 여기서 이정출에 행동에 대해 비평해보고 싶다. 이정출은 과연 친일파로써의 행세를 한 것일까, 아님 의열단으로써의 행세를 한 것일까. 나는 이정출이 비로소 경무국 경부 신분이지만 의열단으로써의 행세를 하였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정출이 히가시의 명령을 받고 김우진에게 신분을 숨긴 채 접근한 것은 사실이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정출은 의열단의 임무에 큰 공을 세운 것과 다름이 없다. 경성행 열차에서 김우진은 하시모토에게 당연히 사살될 상황이었다. 만약 이정출이 이 상황에서 김우진을 도와 함께 하시모토와 그의 부하들을 죽이지 않았다면 의열단의 임무는 실패로 돌아갔을 것이 분명하다. 이정출에게는 분명 친일과 애국이 마음 속에 공존했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직위를 중시하는 친일보다 조선과 의열단을 지키기 위한 애국이 더 컸기에 의열단의 임무를 끝까지 도와주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에 이정출은 실제로 의열단 소속은 아니지만 의열단으로써의 행세를 하였다고 생각한다. 사실 이 영화의 내용을 모티브로 한 사건인 '황옥 경부 폭탄사건'은 실제로는 경성역에서 폭탄이 발각되고 모두 압수당해 실패로 돌아간 작전이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이정출이라는 인물을 의열단을 돕는 인물로 반전 설정하여 작전을 성공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이 영화는 이정출을 완전히 친일화된 하시모토와 같은 악인으로 그리지 않았다. 친일과 애국만이 존재했던 양극단의 시대. 국가가 무너지고 불의가 판치던 혼란 속에서 자신의 선택에 의해 스스로 불행을 초래할 수도 있었던 그가 정체성이란 큰 지도자의 신념과 김우진의 끈질긴 회유,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의열단의 결연한 의지를 대면한 후, 애국심과 개인의 이기심 사이에서 갈등 고뇌하는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다시 자신 안의 정의와 정체성을 찾아 애국심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고, 그렇게 의열단의 임무를 끝까지 수행하였다는 생각을 해본다.

3. 반전 인물 이정출

자신의 신분이 친일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를 위해 애국을 위해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 목숨을 무릅쓰고 의열단을 도왔다는 점이 새삼 대단하다고 느껴진다. 이정출이 모티브로 한 실제 인물인 황옥은 친일하여 경무국 경부 자리까지 올랐으나, 광복 이후 김시현 등 의열단원과 꾸준히 교류하였고, 반민특위의 일원으로도 활동하였다. 어찌 보면 이 영화는 전체적인 뼈대는 허구인 셈이지만, 1920년 9월 의열단원 박재혁의 의거로 발생한 부산 경찰서장 폭살 사건, 1920년 12월 의열단원 최수봉의 의거로 발생한 밀양 경찰서 폭탄 투척 사건이 있었다는 점을 미루어 보면, 김지운 감독이 이러한 실제 사건에서 아이디어를 차용해 이정출이라는 반전 인물을 만들어 낸 것이라고 본다. 김지운 감독은 이 영화에서 이정출이라는 인물을 통해 과거 일제 강점기 시대에 친일파들도 수두룩 하지만 신분은 친일파지만 애국심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헌신한 인물이 있었다는 것을 전하고 싶어했던 것이 아닐까?

1)

1) <https://namu.wiki/w/%EB%B0%80%EC%A0%95%28%EC%98%81%ED%99%94%29#s-7>

-
- 2) https://blog.naver.com/daraksil_hyejin/223368888903
 - 3) 식민지시기 배경 영화들의 상품미학 이데올로기 비판 <암살>, <밀정>, <아가씨>를 중심으로
 - 4) "독립운동 재현" 장르영화의 탈식민주의적 분석 : <암살>과 <밀정>을 중심으로
 - 5) 영화계 및 역사학계 인사들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암살>, <밀정>을 연관 지으며 언급한 바는, 「Why뉴스 : 영화 '암살'·'밀정' 왜 '의열단'에 주목할까?」

◆ 1차 피드백 및 반영표

번호	피드백 의견	피드백 반영 및 이의 제시
	<p>피드백 내용 정리 글자 크기 8 *해당 줄은 지우고 제출하세요.</p>	<p>검정색 : 피드백 원문 제시 붉은색 : 수정 내용 제시 파란색 : 피드백 내용 이의 제시</p>
01	<p>인터넷 참고자료는 URL을 자세히 표기하고, 접속 일을 표기하세요.</p>	<p>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기동전사 건담 SEED는 새로운 건담이다” https://blog.naver.com/chinppo/80006519166 (accessed 2023.9.13.)</p>
02	<p>자프트군의 뉴트럴 재머와 뉴트럴 재머 캔슬러를 비교하여 제시해 주세요.</p>	<p>본 비평문은 중심 내용은 인종차별입니다. 따라서 뉴트럴 재머와 뉴트럴 재머 캔슬러에 관한 비교 분석은 인종차별과 관련성이 멀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부분은 수정하지 않았습니다.</p>

◆ 문화비평문 (완성본)

외식조리학부 외식조리전공 202411017 김민승

1. 울타리 밖의 이방인과의 조우
2. 신과 괴물의 경계
3. 아크 엔젤의 구원자
4. 인종을 넘어서

1. 울타리 밖의 이방인과의 조우

하나의 사회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은 같은 사고와 삶의 양식을 공유하며 살아간다. 이러한 삶의 동질성은 그것을 나와 너의 경계를 만드는 울타리가 된다. 울타리 안은 우리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친숙한자들의 삶의 공간이지만 울타리 밖은 낯선 자들의 공간이다. 그들을 찾아가는 행위나 그들이 찾아오는 것은 언제나 두려움으로 가득하다. 그들이 우리의 삶을 파괴할지 아니면 우리의 삶의 양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기동전사 건담 SEED는 네추럴과 코디네이터 사이에 울타리가 존재한다. 한 때 서로의 삶의 양식을 공유하던 그들은 ~~~

2. 신과 괴물의 경계

에르빈 슈뢰딩거는 상자를 열기 전에는 안에 있는 고양이가 살아있는 상태와 죽어있는 상태로 공존하고 있다²⁾고 말한 바 있다. 이방인이 존재 방식 역시 이와 같다. 이방인을 만나기 전까지 울타리 밖의 존재는 환대해야할 신일지, 적대해야할 괴물일지 확신할 수 없다. ~~~

3. 아크 엔젤의 구원자

코디네이터인 키라 야마토(주인공)은 ~~~

4. 인종을 넘어서

- 1500자 이상
- 글 전체 제목
- 장 제목
- 서론/본론/결론을 구분하여 쓸 것
- 참고문헌 주석으로 표기할 것
- 참고문헌은 최소 5개 이상의 문헌을 참고할 것
- *주석 넣기 : Ctrl + N + N

2) Schrödinger, Erwin (November 1935). "Die gegenwärtige Situation in der Quantenmechanik (The present situation in quantum mechanics)". *Naturwissenschaften* 23 (49): 807-812.